

영국 FIRST지 메시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FIRST를 통해 영국 국민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나는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영국을 국빈방문합니다. 올해는 영국의 주한공관이 설치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방문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나라는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우방입니다. 특히 한국전 당시에는 모두 5만 7천명의 영국 젊은이들이 우리와 함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EU 국가 중에서 우리의 두번째 교역상대국이자 최대의 투자대상국입니다.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동북아 금융 허브로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는 세계 금융의 중심인 영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에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경제 지도자들과도 두루 만나 양국간 실질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교육·문화·관광·스포츠 등 민간 분야의 교류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나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할 생각입니다.

며칠 뒤 런던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기를 바라며, FIRST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